

李 ‘현물 ETF’ 띄운다… 디지털 자산 제도권 진입 신호탄

〈이재명〉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기대
美·日 앞서가자… 국내도 규제 정비
“규제보다 육성” 전담조직 필요성 ↑
업계, 정책·산업 육성 로드맵 촉구

“가상 자산 업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영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탈중앙 방식의 거래, 대출, 보험 등 디파이(DeFi) 금융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생소한 영역에서 변칙적인 방식의 금융 활동이 성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국이 가상 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빨리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가 제도권 편입의 꿈에 부풀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화가 빨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현물 ETF의 합법화 물살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ChatGPT로 생성한 ‘가상자산으로 실물 자산 조각투자 중인 투자자들’ 이미지.

가상 자산 하루 거래 대금은 작년 12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합산한 15조3000억원보다 크다. 작년 말 시가총액이 2298조여원인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15조원 규모인데, 시가총액 100조원 규모인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2조원가량

많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내걸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기초로 지수를 만들어 일반인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

도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는 지난해 1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화됐다. 이전까지는 선물 ETF만 허용됐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년 만에 현물 ETF를 허용함으로써 기관과 개인투자자 모두 증권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도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FIU) 체계에서만 다뤄지는 구조로는 산업 육성이 어렵다”며 “이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포

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치 변동이 커 결제보다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데 비해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결제가 주요 기능이다. 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달러와 국제 수요를 높일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 정부가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의 법제화도 확실시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투자가 까다로운 자산을 쪼개 손쉽게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금융투자 상품을 다변화하려는 증권사 등의 관심이 크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정책 훈풍 타고 증권 ETF ‘고공행진’

KRX 증권지수 20.98% 급등
정책 본격화 땀 추가 상승 기대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기대감으로 증권지수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뛰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미래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0개 주요 증권사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20.98% 상승했다. 증권사 주가의 강세에 힘입어 KODEX 증권 ETF는 같은 기간 21.20%, TIGER 증권 ETF는 12.63% 오르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대선 국면에서 여

야 주요 후보들이 나란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세제 혜택 확대, 배당 및 주주환원 강화 등 실효적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코스피의 체계적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민 전반의 투자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증시 부양은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며 “여야에서 모두 증시 활성화 및 주주환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정책 수혜뿐 아니라, 증권업 ETF는 고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배

당 투자 수요까지 흡수하며 투자 매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졌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채권, 기업공개(IPO), 위탁매매 등 증권업 전반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증권 ETF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 추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해소,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 등 정책 효과와 업황 개선이 맞물려 있어서다.

/원관희 기자 wkh@

이복현, 소통·개입·논란의 3년 마침표

〈금융감독원장〉

‘정면돌파’로 임기 완주

최연소·첫 검찰 출신으로 파격 등판
시장 개입·정책 발언 찬반 평가 교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고 금감원을 떠난다.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3년 동안 주요 금융 현안마다 직접 목소리를 내며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보여줬다. 강한 존재감을 나타낸 동시에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과도한 개입과 정책 훈신을 낳았다는 비판’도 남겼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5일 오전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 참석한 뒤 퇴임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네 번째로 3년 임기를 완주하게 됐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기존 금융당국 수장들과는 다른 행보로 주목받았다. 전 부서를 돌며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인사한 일화부터 시작해, 98차례에 이르는 백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메시지 발신으로 이전의 금감원장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수장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의 3년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시장 경색, 흥국생명의 외화채 미상환, 부동산 PF 부실, 홍콩 H지수 ELS 손실 등 굵직한 사건마다 이 원장은 전면에 나섰다. 금융위·유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은행권 자율배상 유도, 분쟁조정 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감독 행보는 때때로 정치적 사안까지 확장됐다. 실제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이유로 정정요구를 두 차례나 내자, 이는 ‘합병 철회’로 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MBK,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맺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톡 전 이사회 의장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로 소환하며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사 시절 경력을 살려 수사 중간결과를 공개한 것은 금감원장으로서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존재감만큼 논란도 컸다. 정책 메시지가 종종 정부나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다음 달 일부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올해 초에는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말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찰 사조직을 다루듯 조직을 이끌었다’는 불만도 나왔다. 조직 피로감이 누적됐고,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인사·복무 이슈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감독권을 실질적 권력처럼 행사했다”는 비판과 “기득권과 불공정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생활 25년을 마친 만큼,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허정윤 기자

키움증권

군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1년간 최대 2025명에 총 2억 투입

키움증권은 국가직공무원인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 취업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에게 군전문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자격증은 군리더십지도사, 군심리상담지도사, 군생명존중지도사로 주무부처가 국방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 군전문자격증이다.

자격증 발급기관인 미래개발원이 교육 콘텐츠 학습 비용(1과정당 5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키움증권이 자격증 발급비(1과정당 9만원)를 매칭 지원한다. 앞으로 1년간 최대 202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액 기준 약 2억원이다.

미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한화운용, ‘PLUS 고배당’ ETF 1조 돌파

4종 시리즈 합산 순자산 1조95억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4종의 순자산총액 합계가 1조원을 돌파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PLUS 고배당주’ ETF 시리즈 4종 각각의 순자산총액은 ‘PLUS 고배당주’ 8029억원,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1018억원, ‘PLUS 고배당주커버드콜’ 877억원, ‘PLUS 고배당주조정커버드콜’ 177억원 등을 기록해 합계 1조9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판 슈드(SCHD)’로 불리는 ‘PLUS 고배당주’ ETF는 국내주식형 배당 ETF 중 최대 규모 상품이다. 장기·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고배당주 ETF 특성상 규모가 중요하다. ETF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래도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ETF 라인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투자 성향을 충족시켰다. ▲주식 40%, 채권 60%로 설정해 연금계좌 투자에 유리한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KOSPI200 옵션을 활용해 연 18% 수준의 초고배당을 추구하는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옵션 비용을 고정해 주가 상승 시 수익참여율을 높인 ‘PLUS 고배당주조정커버드콜’을 출시해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핵심 편입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PBR이 아직 0.4~0.5배의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주가차지 제고 정책을 본격화하면 고배당주의 리레이팅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